
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관련

- 10문 10답 -

2022. 8. 18.

기 획 재 정 부



목 차



1. 금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율책임경영과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혁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? 1
2. 공기업 · 준정부기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? 1
3. 공기업 · 준정부기관 기준 상향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에 대한 관리는? 2
4. 공공기관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이유는? 2
5.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줄이는 이유는? 3
6.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?3
7. 연구개발 목적기관에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어떠한 자율권이 주어지는지? 4
8.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은? 4
9.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필요한 이유는? 5
10. 공공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? 5

1. 금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율·책임경영과 공공기관 생산성·효율성 제고, 혁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?

- ☐ 새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3대축으로 ❶공공기관 생산성 제고, ❷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, ❸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중
 - *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「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」(6.30일),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(7.29일) 既발표
- ☐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관리체계 개편은 모두 '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'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
 - 기관운영 차원에서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을 혁파하여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,
 -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자율·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·합리적 운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

2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?

- ☐ 공공기관 규모*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·준정부기관 정원 기준(50명)은 15년동안 유지
 - * 공공기관 인력규모: ('17.5월) 33.4 → ('22.5월) 44.9만명 (+11.5만명)
 -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 지정기준*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(공기업·준정부기관)가 지속 확대
 - * 법상 공기업·준정부 기준: 50명 / 공기업·준정부 평균 정원: 약 1,800명
- ☐ 공운법 제정('07년)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,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·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,
 - 기준 상향을 통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하여 기관·부처의 권한·자율성을 확대, 자발적 혁신·책임경영을 유도
- ☐ ❶舊 중소기업 분류기준(300명 미만)과 ❷경영평가 중소형 기준(300명 미만)을 고려, 공기업·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50→300명 이상으로 상향

3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기준 상향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에 대한 관리는?

- 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(기관)평가를 받게되며,
 - 정원 협의, 총인건비 관리,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, 기재부와 협의하게 됨
- ☐ 경영전반에 대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, 이를 통한 기관의 역량도 제고되어 경영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

4. 공공기관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이유는?

- ☐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 적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,
 - 총사업비 지속 증가('17년 대비 약 2배) 등 환경 변화도 반영
- ☐ 동시에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내부 타당성 검증절차*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, 신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

* 사전타당성조사 시행, 투자심의회 의결 등

- ☐ 아울러,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, 재무위험기관*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사업·투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

* 한전, 발전5사, 한수원, 지역난방공사, 가스·석유·석탄·철도공사, 광해광업공단, LH

5.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줄이는 이유는?

-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 개편
 - ‘사회적 가치 구현’ 지표는 ‘17년 이전 11점에서 25점으로 그간 과도하게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
 - 또한,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*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효율성과 재무안정성 지표 등의 강화 필요성 시급

* '22년 상반기 14.3조원 영업손실(연결재무제표 기준)

6.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?

-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 추진
 - 이를 위해 현재 지표체계 개편 전문가 TF를 운영중('22.7~8월)
 - 전문가 TF를 통해 마련된 개편(안)은 '22년도 평가편람(수정, '22.9월)과 '23년도 평가편람('22.12월)에 단계적으로 반영 예정

7. 연구개발 목적기관에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어떠한 자율권이 주어지는지?

- ☐ 연구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교수·박사급 연구원 및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- 교수·박사급 인력에 대한 채용 심사자료의 수집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*
 - * 채용단계별 외부인사 중복 허용, 참여 비중 조정
 -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現 주거지원 외에도 별도의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 개정 추진
- ☐ 또한, 주 고객이 '정부'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*
- * 주무부처가 조사 제외 요구시 적극 검토

8.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은?

- ☐ 최근 직무급 도입기관이 크게 증가하여 '20년말 기준 18 → '21년말 기준 35개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·운영 중
- ☐ 직무급 도입*기관 수 확대를 촉진하고,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강구할 계획
 - * 직무급 도입은 ❶기관 특성을 반영, ❷노사합의를 거쳐, ❸단계적·자율적 도입의 3대 원칙 下에 추진
 - 직무급 도입 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, 직무급 경영평가지표 배점 확대(2→3~4점) 등을 검토
 -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내 보수 담당자 등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도 병행
- ☐ 아울러,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인사·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

9.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필요한 이유는?

- ☐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직무성과 중심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직무중심 인사·조직관리가 필요
 - 공공기관 채용은 NCS기반 직무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선발 이후 보직, 승진, 교육훈련 등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
 - 채용뿐 아니라 인사관리의 쏠 트랙에 걸쳐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따라 평가·승진·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혁신이 필요
- ☐ 민간 성공사례를 연구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의견수렴, 충분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

10. 공공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?

- ☐ 금번 「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」은 공공기관의 자율·책임 경영체제를 확보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
- ☐ 이에 따라, 공공기관 예타, 출자·출연 사전협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관의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,
 - 경영평가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확대(10→20점)하는 등 경영 실적과 성과에 대한 사후책임성을 강화
- ☐ 아울러,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·감사 등의 내부건제 기능을 강화하고,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
 - ❶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, ❷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
 - ❸ESG 공시항목 추가발굴,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등 경영 공시의 역할을 확대, ❹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성·책임성을 확보